

광주시, 도시철도2호선 1단계 전면 도로 개방

광주시가 22일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구간 도로를 전면 개방했다. 2019년 9월 착공 이후 공사로 통제됐던 도로가 약 6년 만에 원상복구됐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이날 시청 시민홀에서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 도로개방 현장 확인' 행사를 열고, 그동안의 공사 추진 경과와 현재 공정 현황, 향후 계획을 시민들과 공유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날 현장 확인 행사에서 소상공인·시민 등과 함께 버스를 타고 시청에서 출발해 1공구와 6공구 등 개방된 도로를 직접 살폈다. 그동안 양복 2~4차로로 제한됐던 도로는 차공 전과 같은 양복 6~9차로로 복구되면서 차량 흐름이 크게 개선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시민은 "도로가 뽕 뚫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가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속이 다 시원하다"며 "그동안 불편이 해소돼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선물을 받은 기분이다"고 말했다.

강기정 시장은 "도시철도 공사는 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고, 대저보 도시를 만들기 위한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며 "참고 기다려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도로개방이 이뤄진 만큼 앞으로는 시민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광주의 도로를 더 쾌적하고 반듯하게 관리하고 남은 도시철도 공사도 제때 안전하게 완공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간은 시청에서



6년간 통제됐던 공사구간 16.3km 도로 원상복구로 개방 완료 강기정 시장, 소상공인·시민들과 함께 개방구간 도로현장 확인

금호지구~풍암지구~백운광장~조선대~광주역 뒤편을 잇는 총연장 17km 노선이다. 광주시는 1단계 도로개방 목표 구간 16.3km에 대해 개방률 100%를 달성했다.

다만 광주시는 지난 7월 연내 도로개방 관련 최초 발표 때 예고한 것처럼 지하정거장 지체 반입과 백운고가 철거를 대체하는 지하차도 공사가 진행 중인 백운광장 일원 등 일부 구간은 부득이하게 일부 차로를 점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방에서 제외된 구간은 금호지구

입구사거리, 금호시영아파트 앞, 무등시장 주변, 광주역 뒤편 등 정거장 4곳과 백운광장 일원으로, 총연장 687m이다. 해당 구간은 자체의 지하 반입이 완료되는 내년 3월과 지하차도 공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개방할 예정이다.

광주시는 올해 6월 대부분의 도로를 개방할 계획이었으나, 굴착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하암반이 당초보다 46.1% 추가 발견됐다. 전력선·도시가스관·상하수관로 등 지하매설물이 30년 전 설계보다 약 1.8

배 늘어나 공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공사 특성상 교통혼잡과 상가, 인근 건축물 안전 관련 민원도 잇따랐다. 광주시는 2019년 1월부터 2025년 11월까지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타이어 파손, 복공판 단차, 교통정체 등 민원 3962건을 처리 완료했다.

시민 불편이 장기화하자 광주시는 지난 7월 '시민불편 신속대응 전담팀(TF)'을 구성해 울퉁불퉁한 도로 정비, 차선 재도색, 유도선 설치 등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교통량이 많은 주요 노선과 교차로 26곳 총 3.7km 구간을 정비해 시민 교통 불편을 단계적으로 해소했다. /전광훈 기자



서구, 민관 협력 물품공유센터 5호점 개소

월광교회 공간 무상제공, 빌려주고 나눠쓰는 공유문화 확산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주민 생활밀착형 공유문화 확산에 박차를 가한다. 서구는 22일 월광교회와 함께 물품공유센터 5호점(화정4동)을 개소하고 주민 선호도가 높은 물품 54종, 총 287개를 지역 주민과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 5호점은 월광교회가 공간을 무상으로 제공해 조성된 민관협력의 대표 사례다. 특히 화정·금호 권역 주민들이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공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한층 높아졌다.

5호점은 '천원세트' 특화 공유공간으로 운영된다. 서구는 계절에 따라 구성된 ▲천원 스노우렌세트(눈썰매, 스노우슈트, 오리집게, 장갑, 귀마개) ▲천원 야외놀이세트(버블건, 축구공, 캐치볼, 티볼, 배드민턴) ▲천원 피크

닉세트(돗자리, 바구니, 폴딩박스, 선풍기) ▲천원 워터락세트(물총, 물안경, 해먹튜브, 방수백, 아쿠아슈즈) 등 총 4종의 테마형 세트를 통해 다양한 야외활동을 지원한다.

또 화정4동 마을BI(Brand Identity)인 '문화놀이터'와 연계해 바이올린·피아노·비프로젝터·닌텐도·보드게임 등 교육·놀이 물품을 집중 배치하고 공구세트·청소기·다리미 등 주민 생활에 필요한 물품도 함께 제공한다.

5호점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9시~오후6시이며 물품 대여신청은 사전에 유선으로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대여료는 평균 물품가액의 1~3%이며 대여기간은 물품에 따라 최소 3일부터 7일까지, 1회 연장(7일) 가능하다. /박석우 기자

광주 동구는 창의적인 발상과 적극적인 문제 해결로 구성 발전과 주민 편의 증진에 기여한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을 최근 선발했다고 밝혔다.

동구는 각 부서에서 추천한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대상으로 1차 실무심사 및 주민투표, 2차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등 2단계 절차를 거쳐 ▲주민 제감도 ▲담당자의 적극성 ▲장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실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수상자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자원순환과 신성심 청소행정팀장이 수상했다. 신성심 팀장은 '탑블

'2025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6명 선발

텀블러 인센티브·기부 혁신·유기견 입양센터·통합건강센터 등 성과

리를 사용하면 300원이 차곡차곡' 사업을 통해 개별 업체 옆을 각각 설치해야 했던 기존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의 불편을 개선하고, 별도 예산 없이 '동그라미 온(ON)' 시스템과 연계한 포인트 지급 방식으로 주민 혜택을 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이 사례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정부혁신 최고사례 인증'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복지정책과 이정아 주무관과 기획예산실 임도연 주무관이 받았다. 이정아 주무관은 고객 기부 캠페인 '나눔 히어로' 릴레이 100호를 달성하고, 기부자 1명 발굴 시 두 개의 모금 실적을 동시에 인정하는 체계를 도입해 모금 성과를 높였다. 임도연 주무관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활용해 도심형 유기견 입양센터 '피스명명'을 조성, 유기견 보호시설을 주민이 찾는 문

화공간으로 전환해 반려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

장려상에는 세무2과 김현성 주무관, 건강정책과 김수지 주무관, 일자리경제과 박진욱 주무관이 각각 선정됐다. 김현성 주무관은 '신택산 수의관 압류'를 도입해 구 세입을 늘렸으며, 김수지 주무관은 분산된 건강 서비스를 통합한 '통합건강센터' 구축으로 맞춤형 건강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박진욱 주무관은 '충장로 홍콩골목 조성' 프로젝트를 추진해 옥외영업 허가 등으로 골목 특색을 살리고 상권 활성화에 기여했다. /오철수 기자

광주시·518재단, 5·18 역사왜곡 유포자 강력 대응

지만원·조정진·스카이데일리 5·18특별법 위반 혐의로 고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와 5·18기념재단은 22일 지만원·조정진 씨와 인터넷신문사 '스카이데일리'를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허위사실 유포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고발 대리는 최기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사무처장과 박인동·신현웅 변호사가 맡았다.

피고발인 지만원은 2023년 대법원 판결에서 '5·18 북한군 개입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가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 3월1일부터 12월까지 11회에 걸쳐 '스카이데일리'에 '지만원의 다큐소설 전두환'을 연재하며 동일한 허위 사실을 재차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정진 당시 '스카이데일리' 대표이사·발행·편집인은 지만원이 형 집행 중인 상황에서 해당 연재물을 게시했으며,

2022년 6월 27일로부터 지만원의 주장에 동조하는 기사를 지속 연재하고 관련 특별법 갈래 게재를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허위 주장의 유포에 관여한 '스카이데일리'도 함께 고발했다.

광주시와 5·18기념재단은 해당 연재물이 단순한 개인 기고를 넘어 기사 게시, 편집, 배치, 확산 전반에 언론사의 편집·유통 책임이 결합된 사안으로 판단했다. 특히 연재물 말미에 지만원 명의의 후원 계좌가 반복적으로 게시된 점을 고려할 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 왜곡 콘텐트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해당 후원금을 단순 성금이 아닌 범죄 수익으로 보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원 기자

전라남도는 성평등가족부의 2026 고립·은둔 위기청소년 정책 지원 사업에 선정돼 고위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위한 1대1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전남도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10월 위기의 고립·은둔 청소년 일상회복과 건강한 성장지원을 위해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공모했다.

이에 전남도는 전남도학교밖청소년지

전남도, 고립·은둔 위기청소년 건강한 성장지원 돕는다

성평등가족부 2026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 공모 선정

원센터와 협업해 사업을 신청, 2026년 신규사업 지역으로 전국 광역·시·도 중 충북도와 함께 선정됐다.

2026년 하반기부터 총사업비 1억 7천 300만 원을 들여 고립·은둔형 학교 밖 청

소년이 심리적·사회적 관계를 조기에 회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전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전담인력 6명을 배치해 학업 중단 후 사회

적 관계 단절로 어려운 고립·은둔 청소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방문 상담·학습, 치유 지원 등 가정·학교·지역사회에서의 통합 지원에 나선 계획이다.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계기로 지역의 고립·은둔 청소년을 선제 발굴해 청소년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